

핀테크 개론

8장 보험시장

보험

- (정의)
- 위험기피적 효용함수를 가진 자(위험을 싫어하는 사람)가 장래의 부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
- 개인이나 기업 등이 직면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자(insurer), 즉 보험회사에 전가시키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통해 모든 보험 계약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킨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보험 (예: 생명보험)

삼성생명 SAMSUNG

홈 사망보장 노후대비 암보험/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아플 때 병원비, 내가 없을 때 가족들 생활비...
필요한 건 알지만, 망설이고 있었다면?
생명보험사 자산규모 1위 삼성생명에서 확인하세요!
(금감원, 2016.3Q 기준)

(2013, 국립암센터)
암 진단비와
치료 기간 중 생활비를
모두 보장받고 싶다면?

(2014,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가장 사망 시 가족들의 생활비와
살면서 필요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2015,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망보장이 필요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였다면?

<http://product.samsunglife.com/tm/>

https://www.kyobo.co.kr/webdocs/view.jsp?screenId=SCOC_ONLM001&biztype=main

KYOBŌ 교보생명

나의 계약

상품

든든라이프

고객센터

	보험	다이렉트보험	대출
<p>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보세요</p> <p>맞춤보험찾기 ▶</p> <p>채팅상담하기</p> <p>상담시간 평일 10:00~17:00</p> <p>채팅상담 바로가기</p>	<p>보험 메인</p> <p>종신/정기</p> <p>연금</p> <p>건강/통합</p> <p>교육/어린이</p> <p>저축</p> <p>장애인보험</p> <p>기업/단체</p>	<p>다이렉트 메인</p> <p>종신/정기</p> <p>건강/상해</p> <p>교육/어린이</p> <p>연금</p>	<p>대출 메인</p> <p>보험계약대출</p> <p>인터넷대출</p> <p>주택자금/ 부동산담보대출</p> <p>신용대출</p> <p>기업대출</p>

보험상품 종류

보험업법 제2조 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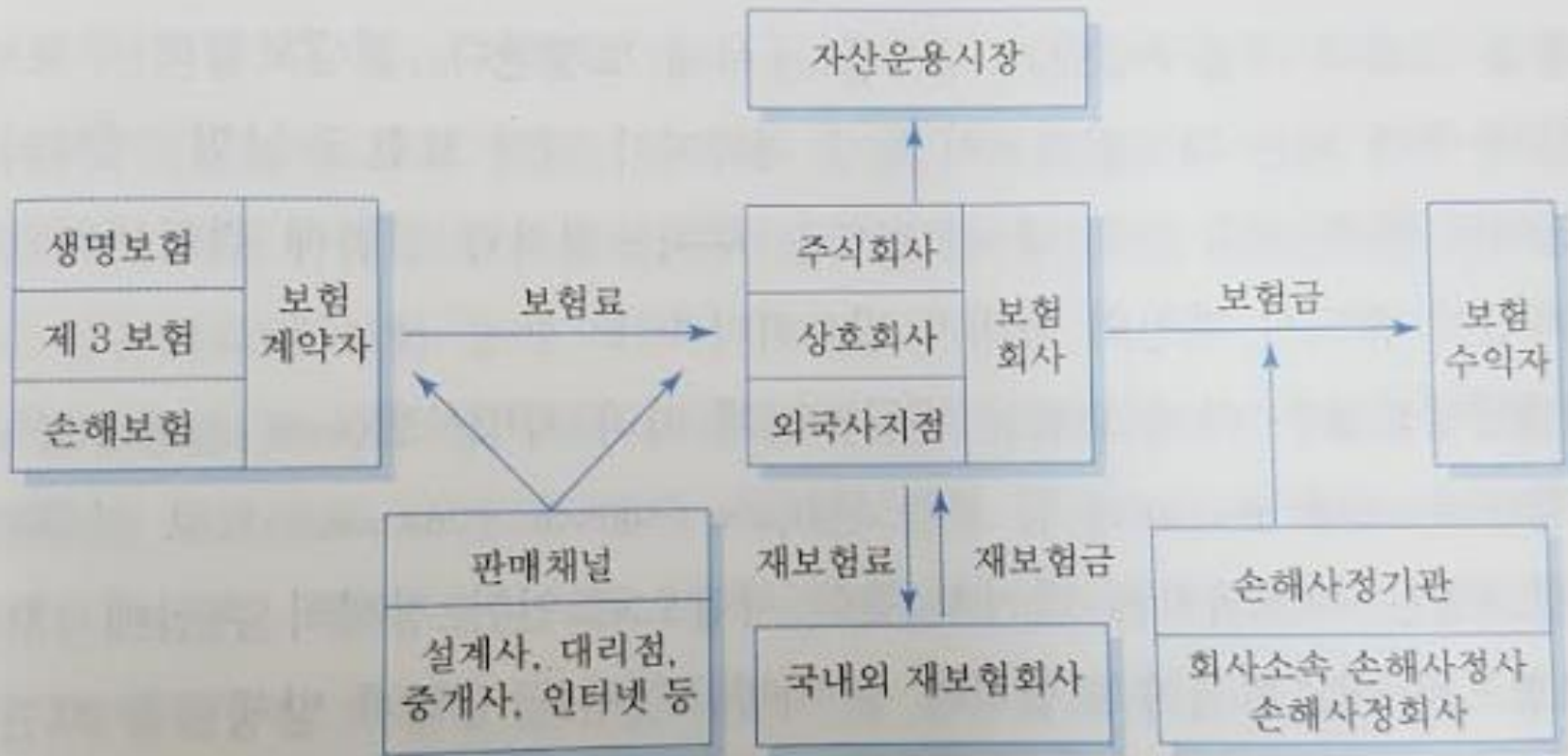
보험업의 보험상품 종류		
「보험업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생명보험	1. 생명보험 2. 연금보험 3. 기타보험	- - -
손해보험	4. 화재보험 5. 해상보험 6. 자동차보험 7. 보증보험 8. 재보험	- - - - -
	9. 기타보험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보험 5. 유리보험 6. 동물보험 7. 원자력보험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제3보험	10. 상해보험 11. 질병보험 12. 간병보험 13. 기타보험	- - - -

자료: 이기형·변혜원·정인영(201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정책보
 2012-2호, p. 54. 강병호 외, 금융시장론 재인용

보험

- 보험계약자의 손실분담은 미래 예상손실에 따라 결정
 - 대수의 법칙을 통해 미래 손실에 대한 예상이 매우 정확해 짐
- ➔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도록 다수의 동질위험단위를 결합하는 기술이 필요
-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은, 생사 혹은 생존과 관련된 위험 (personal risk), 재물의 손해와 관련된 위험(property risk),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liability risk), 보증과 관련된 위험 (guaranty risk)로 구분
- ➔ 보험상품은 크게 생명보험(life insurance)와 손해보험(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로 구분

보험시장의 구조



자료: 보험연구소 강병호 외, 금융시장론 재인용

보험사 수익의 주요 Key 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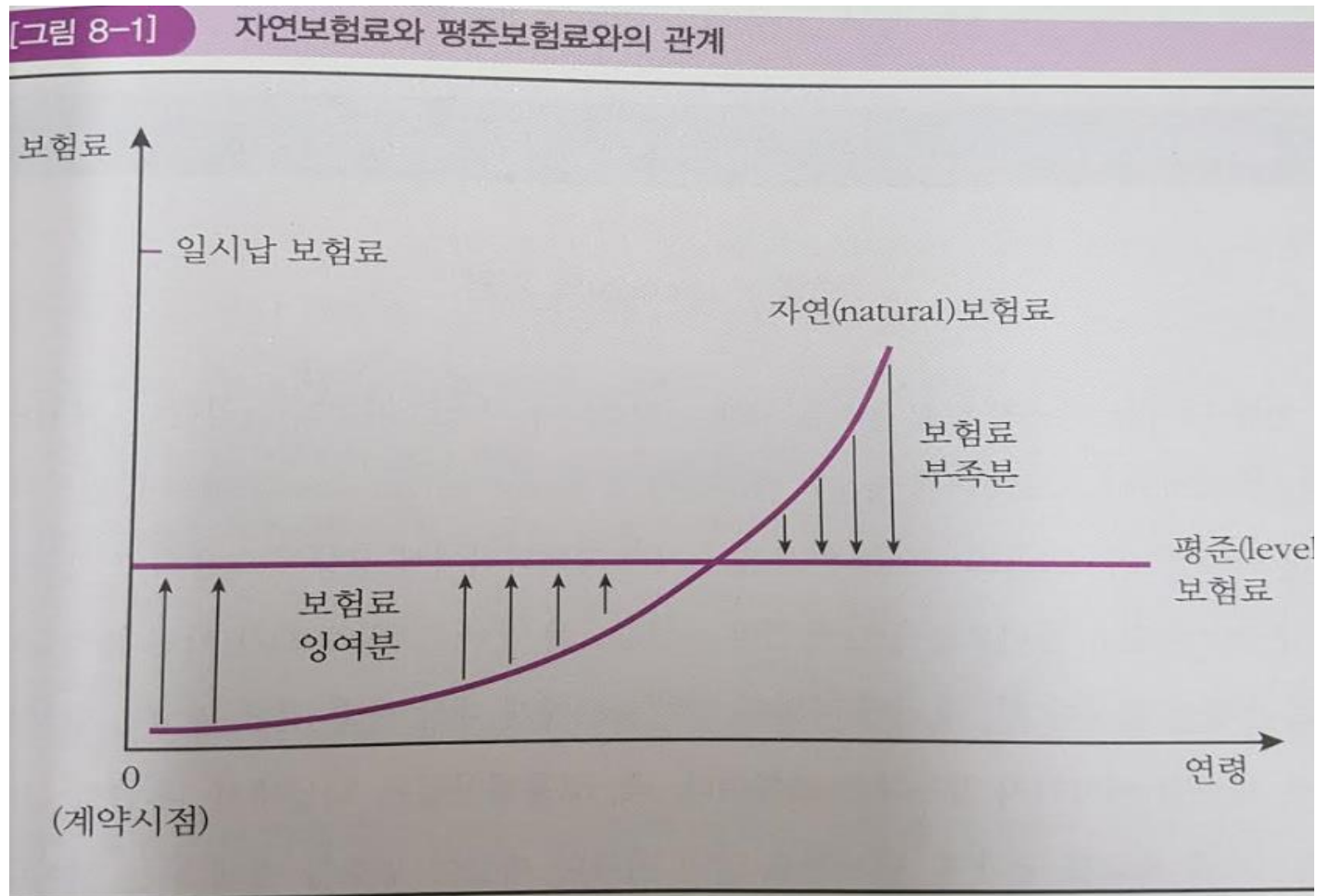
1. 보험료의 적절한 산정
2. 판매채널을 통해 매출 증대 및 대수의 법칙의 성립을 통한 비용 감소
3. 수취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적절한 운용 수익

개인생명보험

- **개인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으로 구분**
 - 사망보험은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망 또는 1급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
 - 생존보험은 보험 만료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교육보험, 노후복지 연금보험)
 - 생사혼합보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결합형태로 만기일 이전까지 사망시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시 만기보험금 지급
-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보험**
 - 보장성 보험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망보험이 대표적
 - 저축성 보험은 만기 생존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보험상품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대표적

개인생명보험료

- 개인생명보험은 평준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며, 향후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생명보험사 예시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80402004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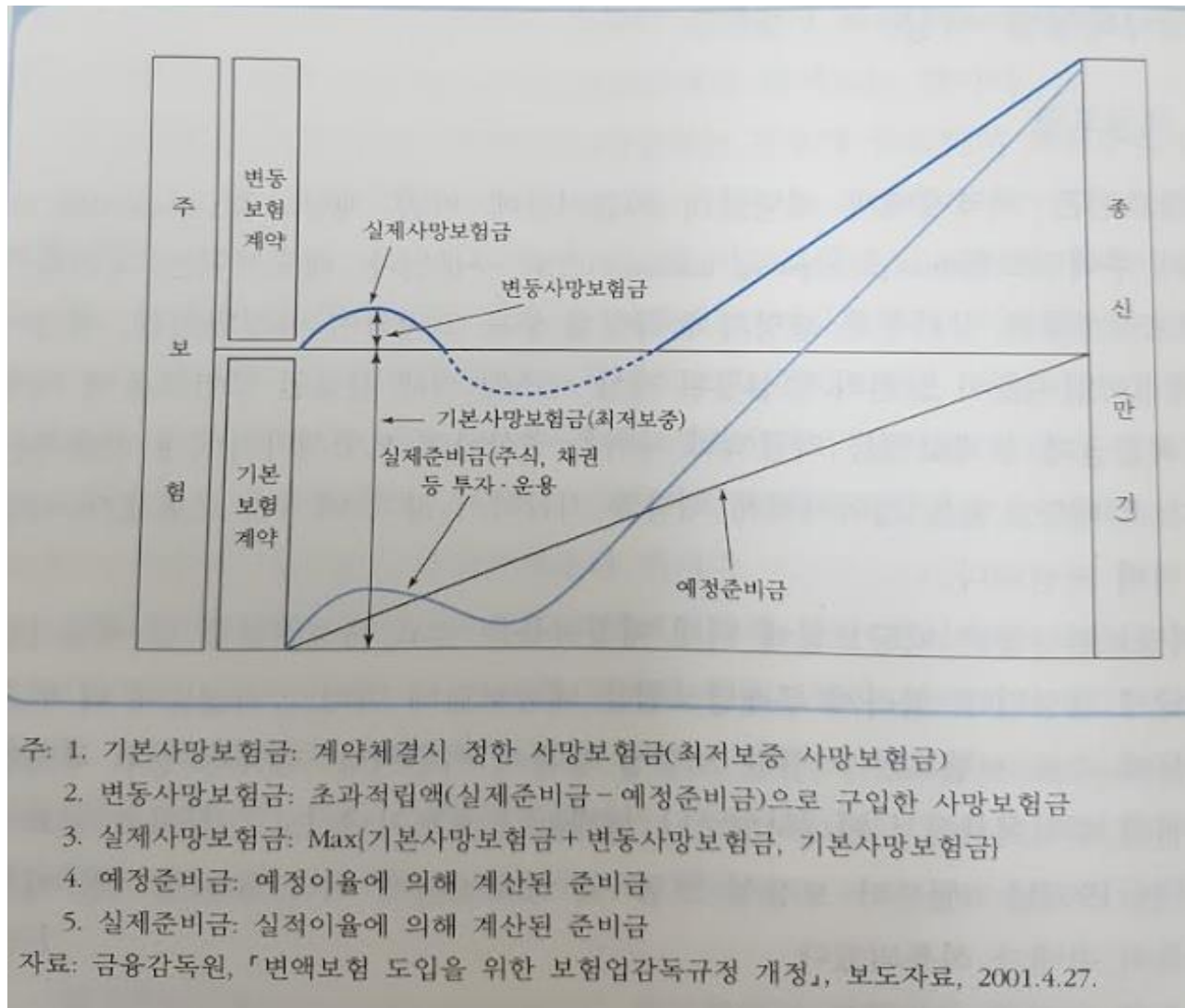
구 분	제 62 기 (2017년 12월말)
I. 현금및현금성자산	4,055,552
II.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861,654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146,042,900
IV. 만기보유금융자산	297,696
V.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67,072,166
VI.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689,402
VII. 관계기업투자	1,629,010
VIII. 금융리스채권	559,238
IX. 매각예정자산	49,691
X. 투자부동산	6,812,422
XI. 유형자산	1,065,818
XII. 무형자산	1,004,315
XIII. 당기법인세자산	543,749
XIV. 이연법인세자산	765
XV. 기타자산	4,705,774
XVI. 특별계정자산	45,323,665
자 산 총 계	282,713,817

I. 보험계약부채	166,897,872
II. 계약자지분조정	9,599,619
III.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5,441
IV. 기타금융부채	19,663,333
V.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239,429
VI. 당기법인세부채	78,715
VII. 이연법인세부채	6,668,710
VIII. 총당부채	239,350
IX. 기타부채	1,009,339
X. 특별계정부채	47,180,437
부 채 총 계	251,592,245
I. 지배기업주주지분	29,358,947
1. 자본금	100,000
2. 자본잉여금	63,084
3. 자본조정	(2,116,95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073,526
5. 이익잉여금	14,239,292
II. 비지배주주지분	1,762,625
자 본 총 계	31,121,57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82,713,817

개인생명보험 – 변액보험 (Separate Account)

- 일반계정(변액보험 이 외)은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지급액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손실을 부담
 - 수취한 보험료를 이용한 투자손익은 모두 보험사에게 귀속됨
 - 변액보험
 - 보험료를 이용하여 운용된 투자자금의 성과가 지급 보장된 금액보다 높게 발생하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상환
 - 즉,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
- ➔ 일반 계정과 분리되어 운영되며, 보험과 투자기능이 결합된 형태

개인생명보험 - 변액보험 상품구조



강병호 외, 금융시장론 재인용

전통적 손해보험 시장

- 구분

- 화재, 도난, 해난손실 등 우발적 사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재산보험
-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부담하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손해보험	4. 화재보험 5. 해상보험 6. 자동차보험 7. 보증보험 8. 재보험	- - - - -
	9. 기타보험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보험 5. 유리보험 6. 동물보험 7. 원자력보험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전통적 손해보험 시장

- 손해보험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해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의 원리와 피보험이익의 원리가 적용됨
- **손해보상의 원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한다는 것으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도적적 위험(moral hazard) 방지 목적
- **피보험이익의 원리:**
보험대상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기타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지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는 도적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인 존재.

전통적 손해보험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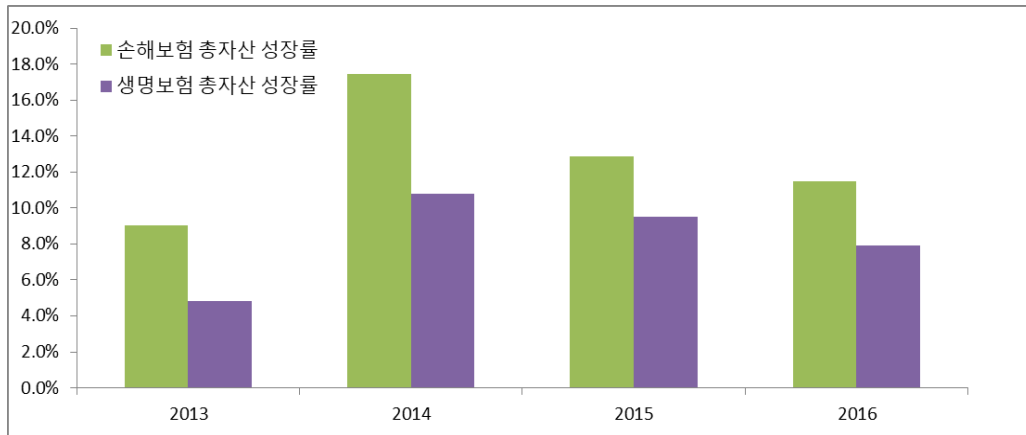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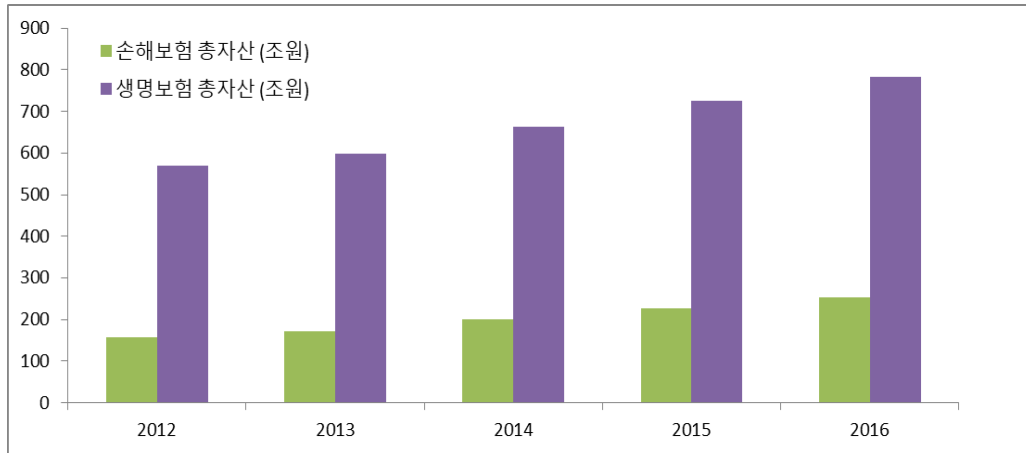
- 특징

-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산 1년 이내
-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보상
-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사건 발생 확률의 예측이 어려워 보험료 추정이 어려움
-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인수위험이나 사업방식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동일 보험회사가 본체 내에서 겸영하는 것을 금지.

보험 통계

(2016기준,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참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AIG
ACE	ACE
AIA	
BNP파리바카디프	BNP파리바카디프
DGB	
IBK연금	
ING	
KB	KB
KDB	
	MG
PCA	
교보	
교보라이프플래닛	
농협	농협손보
	더케이
동부	동부
동양	
라이나	
	롯데
메트라이프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삼성
신한	
알리안츠	
푸르덴셜	
하나	
한화	한화
현대라이프	현대
흥국	흥국

보험 통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03년경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이 급격히 성장
 - 반면, 보험사 임직원 · 전속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 자체 모집조직은 축소되는 추세

<모집조직별 소속 보험설계사 수 추이>

(단위 : 명)

	'14말	'15말	'16말	'17말	'18.6월말
보험사	209,226	202,989	196,796	188,956	184,672
대리점	189,288	204,282	213,991	223,168	224,969
중개사	769	831	838	926	953
합계	399,283	408,102	411,625	413,050	410,594

보험 통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② (낮은 계약유지율)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되어 보험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의 손실이 발생

- 고객의 단순 변심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계약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상품권유 등도 원인
- 또한, 보험설계사가 소속사 변경 이후 기존 고객에 대한 승환계약 권유*도 낮은 계약유지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前소속사에서 모집한 기존 보험의 해지 및 新소속사에서 새로운 보험의 가입 권유
→ 소비자의 위약금 손실 및 설계사의 수수료 수입 발생

※ 보험설계사별 계약유지율 정보가 보험사 내부적으로만 활용(전속)되거나, 산정 자체가 곤란(GA)한 상황

<보험계약 유지율(13회차, 25회차)>

(단위 :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3회차	25회차	13회차	25회차	13회차	25회차	13회차	25회차
생보	81.1	67.1	81.9	65.9	82.4	69.8	81.2	68.6
손보	81.3	65.5	82.5	68.7	83.6	69.9	82.4	70.9
합계	81.1	67.0	81.9	66.0	82.4	69.8	81.3	68.7

보험 통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현행 보험가입시스템 개선**
 - 시스템 활용 정보 범위 확대
 - 투명성 강화 (보험 모집인 및 모집된 보험 계약 관련)
 - 공시제도 개선